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 삼국시대 유물 출토

삼국시대 고분 4기·금·은·청동제 장신구 다량 확인

정읍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의 정비사업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고분 4기와 다량의 금·은·동제 장신구가 부장유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1973년 故 정영래 선생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2018년에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는 2022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고분군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조사단장 박현수)에 의뢰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고분 4기가 새롭게 확인됐고 고분 내부에서 금제, 은제, 동제 장신구와 함께 토기 등 다수의 유물들이 출토됐다.

특히 이번에 출토된 금제·은제 장신구는 정읍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의 조축 시기와 축조세력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고분 4기 중 구조가 명확히 파악된 3기는 모두 황철석식실분(굴식돌방무덤) 형태로 확인됐다. 황철석식실분은 무덤방 앞쪽에 출입구와 널길을 갖춘 고대의 대표적 매장 방식 중 하나이다.

2호분에서는 금제 화형 및 심엽형 장신구 13점, 감청색 구슬, 은제 팔찌 1쌍, 은제 뒤꽂이 4점, 금·은제 반지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됐다. 또 목관을 사용해 시신을 매장한 흔적도 확인됐다. 이는 정밀한 고대 장례 문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호분에서는 금제 구슬 1쌍, 청동 뒤꽂이, 청동 이식 2점이 출토됐으며, 4호분에서도 청동 팔찌 등 다양한 장신구가 발견됐다.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정읍 지역의 고분 문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학수 시장은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백제 중방문화권의 중요한 유적으로, 그동안 도굴되지 않은 백제 고분에서 다량의 장신구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의 정비사업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고분 4기와 다량의 금·은·동제 장신구가 부장유물로 확인됐다.

가 출토돼 주목받고 있다"며 "체계적인 발굴조사와 정비·복원을 통해 정읍의 역사성을 밝히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둘레,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시)둘레가 주관한 2024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 골골숯' 공연이 정읍시 연지아트홀 무대에 올려졌다.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술, 골골숯' 문화를 나누다 라는 주제로 문화가 있는날 25일 오후 7시에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시)둘레 주관으로 열렸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공감하고 즐기는 문화공연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전자현악 팔레타 장구 드럼 등으로 풀라보를 이루어 관객들의 박수와 소통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외국인 유학생 초청 프로그램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하반기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K-한지마을 조성 공간 활용,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K-한지마을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전통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K-한지마을 조성 공간과 전주 전통문화 시설 내에서 △전통한지 제조 △한지 상품 제작 체험 등을 비롯한 한식,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정읍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포럼'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26일 '2024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그간 중앙정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일생활 균형 정책을 소규모 사업장으로의 확산에 목적을 뒀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생활균형 만들기 : 소규모 사업장부터'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사업장의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토대로 근로자들의 인식, 제도 등 모든 측면에서 일

생활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포럼은 조막래 연구위원(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해숙 교수(한일장신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안현미 소장(돌봄정책&젠더연구소), 이주환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변상준 센터장(부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김응일 대표((주)이노케이), 김민성 도민(육아휴직 근로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정은성 기자

무주국가유산축전으로 '무주다움' 뽐낸다

10월 5~6일 들소리 경연·조선왕조실록 이안·포쇄 행렬 재연·야행 개최

무주군 국가유산을 망라한 2024 무주국가유산축전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무주한풍투와 무주향교, 무주군청, 남대천교(사림의 다리), 적상산사고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는 2024 지역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군이 주최, 무주문화원과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무주군민속예술진흥회, 전북민속예술진흥회가 공동 주관·후원하는 행사로,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과 야행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행사들을 모아 무주국가유산축전으로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전 첫날인 5일에는 무주군 치목마을(삼베일소리)과 서면마을(삼여소리) 등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들소리 관련 개인과 단체들이 겨루는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들소리 한마당 경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오후 2시부터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모향산사고본을 적상산사고로 옮기던 행렬을 재연하는 행사가 무주읍 한풍투 사거리에서 군청을 거쳐 한풍투까지 이 어진다.

이날 '현감 행렬'과 '봉안사 행렬', '무주 현감', '봉안사 맞이', '관아보관식 행렬',



'봉안식' 재연을 위해 주민 388명이 동참할 예정이며 말도 17필이 동원된다. 한풍투 내에서는 '서책 만들기'와 '민화 그리기', '의궤 전시', '복식 체험' 등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부스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저녁 6시부터는 한풍투에서 '7야(夜)'를 주제로 '무주문화유산야행'이 진행된다. 야행에서는 밤에 비춰보는 국가유산(야경)을 비롯해 밤에 걷는 거리(야로), 밤에 듣는 이야기(야사), 밤에 보는 그림(야화), 밤에 감상하는 공연(야설), 밤에 즐기는 정터(야식·야시)를 테마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놀이 등이 준비된다.

한풍투에서는 북청사자놀음을 시작으로

전주대 싸움아비팀의 태권도 시범, 개막식, 모던 창극 삼도공물과 강강술래, 태권 락 퍼레이드가 진행되며 군청앞마당에서는 금산문화원 초청공연 물때기 농요를 비롯한 클래식과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향교에서는 인형극 안국사 학대사의 전설과 클래식 앙상블, 성악, 사물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이튿날인 6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적상산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 포쇄 의식 재연 및 기록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선왕조 포쇄 의식은 총해를 막기 위해 책을 햇볕과 바람에 말리던 것으로, 무주군은 국가유산청이 공모했던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조선왕조실록 모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포쇄 의식 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산골영화제와 무주반딧불축제에 있는 무주국가문화축전을 통해 무주가 품고 있는 국가유산과 문화콘텐츠 등 유무형 자산의 위대함을 확인하시게 될 것"이라며 "무주다움이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방문객들에게는 기대감을 안기는 동시에 무주군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끼고 가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광한루One Pick크닉존' 10월 13일까지 운영

남원시는 가을을 맞아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광한루One Pick크닉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3회씩 운영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5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회차마다 사전 예약 10팀과 현장 접수 10팀 등 총 20팀이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5,000원이다.

참가자는 돗자리, 테이블, 조화, 담요 등으로 구성된 피크닉 세트와 간식 세트를 제공받아 광한루원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선착순 40팀에게는 특별 제작된 쿠키 세트가 제공되며, 감성적인 피크닉을 즐기는 동안 광한루원의 아름다운 배경을 활용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예약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피크닉 참여 후에는 설문조사와 함께 광한루원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 이벤트가 진행되어, 참여자들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9월 28일(토) 오후 4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 합창단

부안여성합창단

정읍 Ever green 합창단

전주교육지원청 합창단

크로스여성합창단

전주시민합창단

전북 CBS레미디스 관사 합창단